

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

◎ 학습목표

1.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2.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.

◎ 학습목차

1. 다문화 수용성이란?
2.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어느 정도인가?

I. 다문화 수용성이란?

* 참고 동영상

<https://youtu.be/WVV-IBBkBzy0>(다문화 사회의 편견)

1.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

-우리가 다른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은 어떤 단계를 거친다는 관점

*7단계설: 자민족 중심주의→인식→이해→수용/존중→음미/가치부여→선택적 채택→다문화주의

-수용은 이 중 4번째 단계로서 '수용 및 존중'(acceptance/respect) 개념에 포함

-다른 문화가 가진 삶의 방식이 자신의 문화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문화가 가진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가는 단계: 상대주의적 접근

-내가 가진 문화, 삶의 방식이 최고, 최선이라는 관점,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

-문화의 영향력과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른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

-다문화 감수성 (Multicultural Sensitivity) 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

-다문화 수용성이 부족한 경우 다른 문화, 종족에 대한 부정적, 고정적 관념 발생

=>>차별, 편견,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



2.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

- 일반국민 및 청소년들이 가진 다문화수용성 수준 및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, 보다 바람직한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
-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통합위원회 및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를 개발
- 여성가족부가 이를 토대로 일반국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정기적 조사를 실시

II.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어느 정도인가?

1. 2015년 조사 결과 중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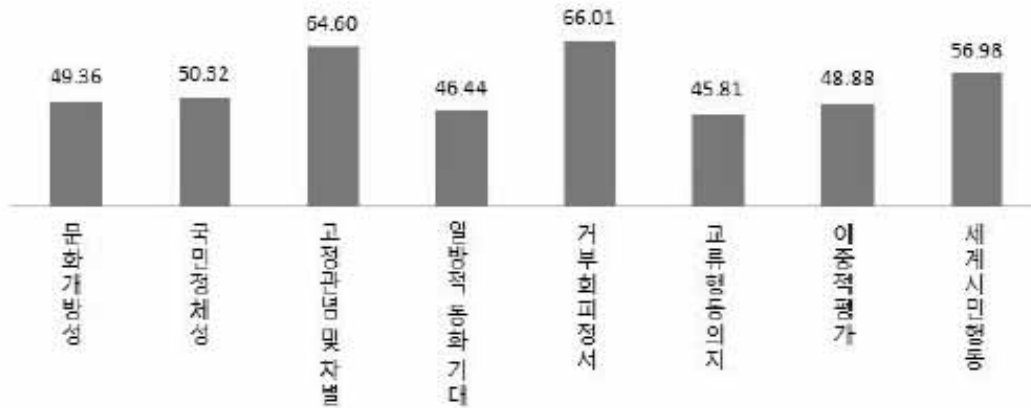
1) 조사개요

- 조사대상 : 전국의 만19세 ~74세 연령범위의 성인 남녀 총 4,000명
- 조사방법 :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표본틀로 삼아 추출된 조사구에 의한 전국 4,000가구 대상,전문면접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
- 조사기간 : 2015년 9월 10일 ~11월 10일 (2개월 간)
- 조사내용
 - 35개 문항의 일반인용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
 - 3개 차원,8개 구성요소로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지수 산출
 - ‘이주민과의 접촉정도’, ‘관계유형’, ‘대중매체 접촉 빈도 및 접촉 내용’, ‘해외여행 및 거주 여부’, ‘다문화 교육, 다문화 관련 활동별 참여 유무 및 빈도’, ‘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인식 및 관련 국제비교 지표’ 등

2)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주요 결과

-2015년 일반국민 4,000명의 다문화수용성지수는 53.95점

- *2011년도의 다문화수용성지수 51.17점과 비교하여,2.78점이 증가
- *2011년도 조사에 비해 다문화 교육, 다문화 관련 활동 참여,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의 접촉 빈도 증가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
- *다문화수용성지수의 구성요소별로는 이주민에 대한 ‘거부·회피 정서’, ‘세계시민행동의 지’ 및 ‘고정관념 및 차별’요소에서의 수용성은 비교적 크게 높아졌음
- *8개 구성요소들 가운데 ‘일방적 동화기대’는 유일하게 저하: 이주민에 대해 한국의 문화나 관습에 맞추거나 따를 것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음



3) 다문화수용성지수 구성요소별 분석

※ 출처: 안상수 등, 「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」,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2015. 11., p. 58

-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요소

- *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‘거부·회피 정서’와 ‘고정관념 및 차별’,
- *비교적 높은 ‘세계시민행동의지’: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나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

-다문화 수용성을 낮추는 요소:

- *낮은 ‘교류행동의지’: 외국이주민 등과의 상호교류 하고 자 하는 의지가 낮음
- *강한 ‘일방적 동화기대’: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이 우리의 문화와 관습을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
- *강한 ‘이중적 평가’: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의 출신국가나 지역의 경제력 수준이나 피부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향

*‘문화개방성’, ‘국민정체성’요소 등도 전체 지수 평균값보다 낮음

2. 전반적 추이

- 막연한 거부반응이나 낯섬에서 오는 차별 의식은 변화하고 있음
- 여전히 다양한 민족, 종교,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
- 혈통이나 피부색, 전통적 음식, 한국어 사용 등을 근거로 ‘국민됨’ 또는 ‘한국민이 되는 것’에 대해 완고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높음
-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

